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무등산 난개발 걱정된다

수질 악화 따른 취수 중단...광주시 40년만에 9.7km² 규제 풀어 음식점·펜션 등 마구잡이 건축 우려...지역 환경단체 강력 반발

광주시가 4수원지(상수원보호구역) 9.7km²(1981년 지정)에서 40년 만에 해제를 했다. 보호 구역 중 사유지가 5.7km²로 조선대 면적(1.04km²) 5배 규모에 달하면서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음식점과 펜션, 고급 단독주택단지 등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무등산 자락에 대한 개발 광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967년 완공된 후 50년이 넘도록 광주시민의 수돗물을 책임지던 4수원지가 수질 악화로 상수원의 역할을 상실함에 따른 조치이다.

5일 광주시 북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6일 제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북구에 요청했다.

원수 수질악화를 이유로 4수원지 취수 중단 및 각종 정수장 폐쇄가 결정된 데 따른 조치로, 해당 지역 일대 화암마을 주민들의 해제 요청도 반영됐다는 게 북구측 설명이다.

광주시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북구 청풍동 일대 석곡천을 막아 190만여 명의 물로 조성된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1981년 이후 40년 만에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광주시는 지난 1957년 극락강변에 제 3수원지를 마련하고 극락강물을 정수해 생활용수로 공급하다가 4수원지 개발에 착수했다. 당시 낮은 지대의 물을 퍼 올려 도심 각지로 올려 보내는 데 따른 비용 문제와 기술적인 한계 등을 고려해 무등산 인근 고지대에 위치한 수원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같은 점을 들어 지난 1962년 제4수원지 조성공사에 들어가 1967년 완공했다. 이 때 석곡천 인근에 위치했던 화암마을이 수몰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그러나 도시 팽창으로 4수원지 저수량(190만t)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5수원지인 동북수원지 조성에 들어가 1971년 준공했다. 이후 동북댐 완성으로 동북수원지 2차 준공이 완료됐고 주암호 물을 취수하면서 광주시의 생활용수 문제가 해결됐다.

광주시는 그러나 4수원지 원수 수질악화와 그로 인한 광주시 북구 각화정수장 가동을 저조로 4수원지를 더이상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최근 취수 중단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4수원지 원수에서 맛·냄새물질인 '지오스민(Geosmin)' 및 '2-메틸아이스오르네올(2-MIB: Methyl isoborneol)'가 기준치(20ng/L)를 넘게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분이 기준치 보다 많으면 수돗물에서 흙, 곰팡이 냄새를 유발한다.

광주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약 170억원)가 필요하나 정수 생산량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으로 판단, 지난해 12월 환경부 승인을 거쳐 지난 5월 4수원지 물을 정수하는 각화정수장을 폐쇄했다.

광주시는 4수원지를 생활용수로 쓰는 목적이 사라질 경우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 등을 고려, 북구에 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북구는 이달 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 환경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수십 년 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받았던 해당지역내 주민들의 개발 행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 뿐 아니라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곳으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는 데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대규모 난



광주 북구 청풍동 제4수원지가 지정 40년 만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개발은 어렵다는 게 북구 등의 설명이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따라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건축물 건립, 시설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만큼 자연공원법을 적용, 국립공원내 마을지역 내 2층이하 연면적 230㎡이하의 건축, 3층 이하 300㎡이하의 1·2층 근린생활 시설 건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도심 외곽 지역으로의 개발 열기가 여

전한 현실에서 도심에서 지을 수 없는 고급 단독주택 단지 조성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 기대감이 제기될만 하다는 게 부동산업계 쪽 얘기다. 음식점과 식당, 펜션 등의 시설 건립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리면서 출입도 가능해진다.

당장,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예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등산 자락 규제 등을 풀어 개발쪽 입장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치현 광주환경연합 대표는 "4수원지가 상수원의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무등산 국립공원 내 부지로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각화정수장은 9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까지 배수지로 전환하는 공사를 진행해 두암·풍향·우산·문흥동 등 일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용부 산하기관이 불법 파견...법원 제동에 파장 예고

"산업보건공단 직접 고용 의무"

광주 지자체 유사사례 적지 않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법에 금지된 파견 형태로 직원을 고용했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전국에 비슷한 형태로 운영중인 센터만 23개에 이르는데다, 관련된 노동자만 수백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중인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전 사무국장 A씨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공단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기관인 조선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근무하다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며 사직된 뒤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곳으로, 광주를 비롯해 전국 23곳에 설치돼 민간 기관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아니라, 공단이 건강센터 소속 근로자에게 사실상 지휘·명령을 했다"면서 "파견법 위반으로 공단이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파견이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다른 사용자(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도록 하는 고용 형태다. 파견법은 대상 업무와 기간을 한정하고 허가받

은 업체에만 파견을 허용한다. 법을 위반하면 사용자 사업주가 직접 관련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한다. 공단측은 전문성을 갖춘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것으로 근로자 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는 공단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면서 "공단과 조선대 산학협력단 간 위탁운영계약은 불법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비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면서도 정부 산하기관을 통한 불법 파견, 비정규직 운영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부는 "공단은 광주 센터 업무와 관련,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를 상시적으로 했고 A씨는 직접 공단의 업무지시를 받아 수행해왔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매년 전국 센터 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뿐 아니라 전국 센터의 주간, 월간 실적을 확인하는 등

센터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해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공단의 전문성을 갖춘 업무수행가이드 등이 제공된 점 등을 들어 조선대 산학협력단의 전문성이 발휘될 여지도 크지 않았고 광주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인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보건관리를 위해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근로자건강센터가 명확한 법적 설치 근거가 없어서 매년 기재부의 예산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획일적인 관리를 시도하려다 보니, 국가가 책임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민간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법원에서 국가 책임이라 점이 확인돼 이와 비슷한 위탁 센터 등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파트 공사장근로자 추락사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떨어져 숨졌다.

5일 광주남부경찰과 광주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5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백운 대라수어썸브릿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A(64)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지상 5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거푸집 고정 작업을 하던 도중 4층으로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남부경찰 등은 이날 오후께 사고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으며 사고 당시 안전 고리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노동청은 백운대라수어썸브릿지 건설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로, 추후 재조사를 통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515㎡(구 156형) 대지 582㎡(구 176형)
- 지하 1층, 지상 9층 지하 1층, 지상 10층
- 46㎡(구 14형), 64호실 49㎡(구 15형), 72호실
- 매매 - 18억5천만원 매매 - 21억원

중개환영. 010-3605-5000

근린상가, 월세 660만원

- ▶ **광양시 중동 해비치 호텔 옆**
- ▶ 6층 건물 中 4층 전체
- ▶ 분양평수 240평, 전용 147평
- ▶ **현재, 메리츠화재 임대 中**
- ▶ 매매 - 14억(대출 9억 포함)

중개환영. 010-3605-5000